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백지화 갈등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중단 방침을 최종 통보한데 대해 사업 자측이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측에 협상기한을 최종통보했다. 오는 3월5일까지 한국철도공사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일과 19일 1, 2차 의견조화를 통해 "2013년 7월24일 협약 체결 이후 장기간

광주시 내달 5일 협상기한 최종 통보

사업자 측 "불인정...법적대응 불사"

개발사업에 진척이 없어 개발사업을 종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통보했다.

사회건설 측과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2개월, 사회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년7개월 만에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건설 측은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와 협상기한인 3월5일은 너무 촉박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사회건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 철도공사가 제안한 환승주차장 임대료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보지매수의 주체인 광주시가 협상지리를 마련해야 하고, 협상기한도 촉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차타워의 경우 송정역 이용객만을 위한 단순 주차단 해결방안으로, 6월 선거 전 착공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건설 측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종료를 통보할 경우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은홍 기자

곡성 아미산 화재 9시간만 진화...1명 부상

곡성군 아미산에서 불이나 사찰 일부가 소실되는 등 9시간여만에 진화됐다.

26일 오후 9시13분께 곡성군 북서동면 아미산에서 불이났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과 소방 등은 차량 23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13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9시간여만인 27일 오전 6시30분께 불길을 잡았다.

또 불길이 산 아래쪽으로 번져 산림당국 등은 민가 피해를 우려해 소방차량 등을 긴급배치했다.

불길을 잡던 중 진화대원 1명이 발목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태암 일부와 잡목 등이 탔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광주서 태권도 차량 교통사고...6명 병원 이송

27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한 태권도 학원 승합차량이 전봇대를 받았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와 어린이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빛 독촉하다가 형 부부에게 참극 벌인 70대

형과 형수를 흥기로 찌르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70대가 2000만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씨(77)씨는 형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형 부부를 독촉하던 중 참극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형 부부가 사는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빛 독촉을 했다.

조카에게 사업 밀전으로 빌려준 2000만원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형 부부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 고성이 오가던 중 미리 준비한 흥기로 형수를 수차례 찌렀다.

외출 뒤 귀가한 형은 이 같은 현장을 보고 정씨를 제지하려다가 흥기에 찌렸다.

정씨는 흥기를 휘두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정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집안에 쓰러져 있던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형수는 끝내 숨을 거뒀고, 형과 정씨도 중태다. 또 주인 6명도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조카에게 빌려준 돈을 형 부부에게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며 "정씨 상태가 좋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집 침입해 속옷 등 훔친 20대 구속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인근 여성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20대가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자수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A(23)씨를 아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B(37·여)씨의 집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 60~70점과 현금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집 바로 옆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가 CCTV를 보며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 매장에 일하던 A씨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에게 처벌 등을 질문하다 갑자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여성용 속옷 44벌(시가 56만원 상당)을 입수했다.

'술자리서 성폭력 대학생 고백' 학교, 사실 확인 나서

광주의 한 대학 여대생이 선배에게 당한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한 가운데 학교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의 A 대학교는 최근 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졸업한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는 학내의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게시글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어 SNS 관리자를 통해 연결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이름을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피해 여성이 직접 연락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 직원의 개인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았다.

또 추후 유사한 글이 SNS 등을 게시될 것으로 보여 매일 살펴보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발견되면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 대학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SNS 관리자에게 연결을 요청했지만 학생이 이력을 요구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추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술자리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교육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대학 SNS에는 익명으로 "학교 졸업한 선배로부터 술자리에서 당한 성폭력 고백의 글"이 게재됐다.



"제자를 섬기겠습니다" 27일 부산 사상구 동서대 민석소초센터에서 열린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한 장제국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 신입생 대표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행사를 갖고 있다.

광주시민사회 "새마을장학금 지급 특혜...조례 폐기해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7일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11개 노동·청년·종교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장학금은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신만 조장하는 특권일 뿐"이라며 "설치 의무를 강제할 상위법이 없고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급 담당 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새마을장학금(수혜 대상: 새마을지도자 자녀)·빛고을

장학금(광주시민 자녀)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혈세 퍼주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간 새마을장학금 수혜자는 572명으로, 이 가운데 163건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최근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에 육박하는 시민회세를 새마을장학금 명목으로 독자지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동일인으로서 자녀가 번갈아가며 수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의심 사례도 48건이나 확인됐다"며 "4071세대에 불과한 시민(58만9232세대) 자녀보다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84배 높다. 세대수로 단순 분배했을 때 받을 수 있

는 장학금 금액도 128배 많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과정에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는지 중복 지급 범위는 어떤지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특권과 적폐인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당장 폐기하라"며 "각 정당은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대한 당론을 밝히고, 6·13 지방선거 후 보좌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인호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민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